

“세계3위 공항 맞아?”... 탑승객 텅텅, 인천공항의 굴욕

Q 르포 인천국제공항 가보니

한국인 입국 금지한 국가 78개국 항공사·상인, 코로나19 타격 심각
저비용항공사, 긴급 금융지원 절실

“환전하러 오는 손님이 거의 없다. 코로나 이전에 손님이 100명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같은 시간대에 한 5%밖에 없다. 진짜 없다.”

인천국제공항 내 환전소에서 여행객을 주 손님으로 맞이하는 직원 김 모씨의 말이다. 그는 이곳에서 환전소를 들르는 이들 대부분이 내국인이라고 밝혔다.

2월 28일 찾은 인천국제공항은 수용인원 기준 ‘전세계 3위 국제공항’이라는 말이 무색할만큼 한적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수용능력은 7700만명으로 전세계 공항 중 네 번째로 가장 많다. 그러나 한참 출입국 수속 절차를 밟기 위한 이들로 북비야 할 체크인 카운터에는 몇몇만이 그 앞을 서성거릴 뿐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국 또한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한 탓이다. 인천국제공항 내 한산함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한산한 짐 부치는 곳. /김수지 기자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항공기 탑승 전 대기하는 사람들

의 이유를 증명하듯, 모든 직원과 탑승대기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도 눈에 띄었다.

공항철도부터 제1여객터미널까지 이어진 통로에는 빗소리에 단조로운 캐리어 끄는 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다.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이들 사이로 한국어는 곧잘 들을 수 없었다. 대부분이 출국을 위해 탑승을 기다리는 외국인이었다.

중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한 한국인은 “현재 학업 때문에 중국에 거주 중이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학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스라엘이 처음 한국인의 입국 금지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항공 여객 수는 대폭 줄었다. 입국 금지 이전인 지난 21일 기준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은 10만5064명이었으나, 28일 기준 6만7072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일주일 사이 국내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 커졌고, 이와 함께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국가가 78개국(3월 1일 기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 운항 편수도 출도착 포함 849편에서 768편으로 줄었다.

문제는 당장 이렇다 할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항공사들이다. 한 국내 저비용항사의 ‘짐 부치는 곳’은 줄 안내선만 있을 뿐 탑승 전 짐을 맡기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의 탑승객도 없다는 방증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의 수하물 위탁을 돕고 있는 직원 신 모씨는 “확실히 탑승객이 많이 없긴 하다. 2월 초반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줄었다”며 “그래서 몇몇 항공사들도 비운항에 들어갔다. 특히 내국인은 진짜 없다. 외국인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시는 분들

은 아예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결국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지난 28일 공동 건의문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해 정부의 긴급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6개 국적 저비용항사는 ▲무담보 및 장기 저리 조건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공항사용료 및 세금의 전면 감면 조치 시행 ▲고용유지 지원금 비율 한시적 인상 등 정부 차원의 3가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늘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항공사뿐만이 아니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는 음식점, 카페 등 상인들도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

제1여객터미널 푸드코트 내 한 직원은 “지금 (항공 이용객이) 많이 줄어 매출이 거의 반 이상이 줄었다. 여기는 공항이라 출입국 하시는 여행객들이 주요 손님층이다”며 “원래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 많이 오신다. 그런데 지금 아예 출국 수도 줄고 입국자 수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심각한 편이긴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코로나19에도 반도체 회복세... 안심은 금물

D램 고정부가 전담보다 1.4%↑ 서버업계 재고 확보로 가격 올라
재고 쌓이면 상승세 꺾일 우려도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공포가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서버 업계 투자 증가도 이어지면서 시장 회복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아직 불안은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1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고정부가가 전담보다 1.4% 상승했다.

실제 공급도 올랐다. 3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비 4.5%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9.4%나 증가한 결과다.

당초 업계에서는 코로나 19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도체 가격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서버 업계 재고 확보 노력이 꼽힌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미리 재고를 축적하고 있다는 추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 가능성도 가격 상승 원인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가 국내 반도체 업체를 강타함에 따라,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실제로 반도체 업체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대책에 돌



삼성전자 반도체 클린룸.

/삼성전자

입했다. 유연근무제 확대뿐 아니라 근무 체제 재조정, 근무 공간 분리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식당에서는 확진자가 확인되기도 했으며 SK하이닉스도 인천과 청주사업장에서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 격리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생산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반도체 공정 상당부분이 자동화된 데다, 근무를 조정했다고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아서다.

큰 호재도 있다. 코로나19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서버업계 트래픽도 대폭 증가한 것. 데이터센터업체가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반도체 투자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클라우드 업계 성장도 예상됨에 따라 서버 증설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중국 현지 공장도 속속 정상 가동

을 시작한 데다, 스마트폰 등 IT 기기 판매량도 현상 유지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낙관하는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19가 일본과 미국 등으로도 확대를 시작하면서 아직 위협 요인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재고가 지나치게 쌓이면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서버를 중심으로 한 고정부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협상되고 있고, 2월 중순 이후 하락하던 현물 가격도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둔화되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포감의 확대는 밸류에이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제품 가격은 상승이 예상되지만, 생산성저하 등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요인이 생겼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홍 기자 juk@

2월 수출 15개월 만에 4.5% 반등 코로나19 악영향... 對中수출 부진

조업일수 늘며 1년3개월만에 증가
일평균 수출 18.3억弗... 11.7% 감소
반도체 수출 9.4% 반등... 中發 요인

한국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에도 15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일평균 수출은 다시 마이너스가 됐고 대(對)중국 수출도 부진해 코로나19의 악영향 또한 가시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한 412억6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내리 하락세를 걸던 수출이 15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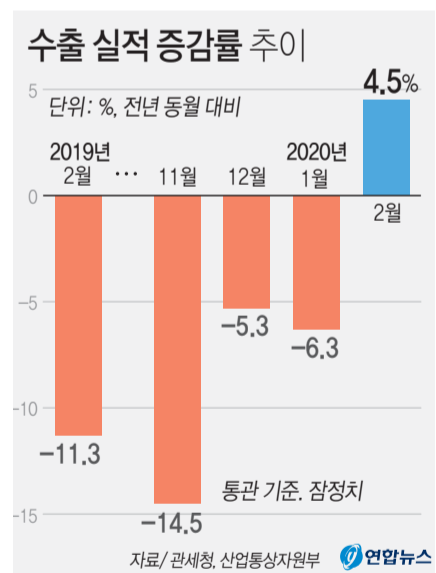
수출 물량 또한 7.3%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20개 주요 품목 중 14개가 증가했다.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의 견조한 증가세와 D램 고정부가 상승에 힘입어 9.4%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상승한 것은 15개월 만이다.

이외에도 일반기계 10.6%, 무선통신 8.0%, 자동차부품 10.0%, 가전 2.5%, 섬유 19.8%, 컴퓨터 89.2%, 선박 8.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新) 수출성장동력 품목은 주요 7개 품목 중 정밀화학원료(-5.3%)를 제외한 6개가 증가했다. 바이오·헬스(22.2%)와 화장품(13.5%)은 각각 6개월, 8개월 연속 상승했고 이차전지(3.3%)와 농수산물(0.4%)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7.5%)·독립국가연합(CIS·12.2%)으로의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갔고 대미국 수출(9.9%)은 9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수입은 1.4% 늘어난 371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는 41억2000만달러로 9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계속했다.

다만 2월 수출이 증가로 돌아선 것은 전년과 달리 설 연휴가 없어 조업일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업일수를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18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중국 수출은 6.6% 줄어든 89억달러에 그쳤다. 특히 일평균 수출은 21.1% 급감했다.

/한용수 기자 hys@